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1월 30일(목) 배포시
담당자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 (044-550-4031, hschang@kdi.re.kr)
배포일시	2020년 1월 30일(목) 13:3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 KDI, 글로벌 싱크탱크 '최우수 기관' 2관왕 영예 전 세계 연구기관 美제외 6위, 美포함 19위

- KDI는 美 펜실베이니아대학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ink Tank and Civil Societies Program)<sup>1)</sup>'이 실시한 "2019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sup>2)</sup>" 평가에서 전 세계 8,248개 연구기관 중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6위를 기록,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는 19위 차지
- TTCSP 측은 올해부터 각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특별 그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최우수 기관(A Center of Excellence)'의 지위를 부여, KDI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아시아 국가 Top 싱크탱크'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국제개발' 부문에서 명예의 전당 등재
- 2019년에는 전 세계 15개 싱크탱크가 '최우수 기관'의 지위를 부여 받는데 KDI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

1) '국제관계 프로그램(International Relations Program)'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2) 2019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 특히,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의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보고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고의 정책 연구·보고서(Best Policy Study·Report by a Think Tank)’에 선정됨.

- 부문별 평가에서는 국제개발(최우수), 기관운영(3위), 정책지향적 연구(5위), 국내경제정책(9위), 국제경제(10위), 사회정책(13위), 미디어 활용(23위) 등 12개 주요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재확인

**< 최근 3년간 KDI의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

부 문	2017년	2018년	2019년
세계 Top 싱크탱크(미국 제외)	5	5	6
세계 Top 싱크탱크(미국 포함)	19	20	19
아시아 Top 싱크탱크	1	1	★
[주요부문]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1	1	★
국내경제정책(Domestic Economic Policy)	10	10	9
국제경제(International Economics)	11	11	10
정책지향적 연구(Outstanding Policy-Oriented Research Programs)	6	6	5
사회정책(Social Policy)	14	14	13
공공정책 영향력(Significant Impact on Public Policy)	41	44	43
국내보건정책(Top Domestic Health Policy)	29	30	29
기관운영(Best Managed Think Tanks)	5	4	3
미디어 활용(Best Use of Media)	22	23	23
최고의 정책연구(Best Policy Study·Report Produced by a Think Tank)	평가 미 실시		포함
최고의 독립 싱크탱크(Best Independent Think Tanks)	포함	포함	포함

★ 최우수 기관(A Center of Excellence) 등재

□ 美 펜실베이니아대학 제임스 맥간(James G. McGann) 교수가 이끄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은 전 세계 학자, 정책담당자,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들의 추천 및 설문조사, 전문가 패널 평가를 토대로 2006년부터 매년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전 세계 8,248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9년 평가에는 각계 전문가 3,974명이 참여해 연구자 수준, 사회적 위상, 연구 성과 확산 정도, 정책 반영도, 기관 리더십, 세미나 개최, 미디어 및 학계 저널 인용도,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선정
  
- 최정표 KDI 원장은 "2021년 개원 50주년을 맞는 KDI는 국가의 큰 지식자산으로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해외 우수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정책연구 허브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힘.